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진주 도시권지역의 통근-역통근을 중심으로-

곽철홍** · 이 전***

도시세력권은 도시의 인구나 경제규모, 교육·문화·의료시설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기능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근권은 도시세력권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에 속한다. 왜냐하면 통근권은 지역 주민들의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매일의 유동량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이에 따른 주민 통근형태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는 전국 차원에서 보면 지방 중소도시에 지나지 않지만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우 넓은 세력권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들의 세력권을 인구나 산업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고, 주민들의 통근형태를 주택-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와 진주시 의료기관의 환자 통계자료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특히 교사들의 통근율에 따른 진주 도시세력권은 진주시로부터의 거리조락성과 도시간의 세력권 경합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 서부지역 교사들의 역통근 형태는 학교가 입지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농어촌의 소규모 중심지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主要語 : 경남 서부지역, 도시세력권, 진주도시권, 통근권, 역통근

1. 머리말

1) 문제제기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필자들은 우리나라 도시세력권과 통근에 관련되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의 도시구조나 도시화에 대한 연구들이 흔히 우리나라 도시세력권 설정이나 통근유형에 관한 연구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개념들을 우리나라 도시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미국 대도시에서는 중류층이나 상류층 주민들이 도시 주변의 쾌적한 공간을 찾아 이주함으로써 교외화가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의 과밀화로 인하여 시외로 밀려난 저소득층 주민들에 의해 교외화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시외지역에 근무지를 갖고 있는 다수의 중류층 혹은 상류층 주민들이 도시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심도시에 거주하면서 시외지역의 직장으로 역통근하고, 중심도시에 취업하고 있으나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다수는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지리전공) 교수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지리전공) 부교수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근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통근형태와는 매우 다르다.

둘째, 통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업사회에서 노동력의 수급관계로 나타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 또는 도시와 도시간의 관계를 통해 지역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구득의 어려움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다(한주성, 1988). 최근에 와서 수도권 지역의 광역화와 관련하여 인구가동이나 교외화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주제에 관해 행하여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지방도시의 통근형태나 세력권에 관한 연구는 효율적인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도시들은 농어촌을 배후지로 하는 공통적인 성격 외에도 개별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지방도시들의 지역구조와 도시간 연계성을 포함하여 세력권에 관한 연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에서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중심도시에서 집중되어 있고 그 배후지인 농어촌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방도시의 배후지는 결코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에서 흔히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별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고 본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개발이라 함은 농어촌 개발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을 보다 매력적인 정주공간이 되도록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도시연구에서는 중심지 이론의 적용과 관련하여 흔히 도시세력권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도시세력권이란 중심도시를 핵으로 강하게 결합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이 범위에 속하는 여러

소단위 지역들은 중심-주변의 강한 기능적 연계성으로 지역적 통일성을 갖는다. 대도시의 세력권에는 여러 작은 도시들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상·하위의 도시들과 계층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중심지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 도시체계가 피라미드형의 계층관계를 형성할 경우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조직을 이룬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도시세력권은 교통수단 개선이나 신도로의 개발 또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변화한다.

일정 지역내에서 도시들의 인구와 경제규모, 교육·문화·의료시설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기능의 정도는 도시세력권의 크기를 좌우한다. 또한 도시들의 경제규모와 서비스시설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인구가 조밀하고 도시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중심지의 세력권이 좁게 나타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세력권이 보다 커지기도 한다. 중심지의 세력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측정 지표가 되는 통근권, 통학권, 도매권이나 소매권, 취업권, 의료권, 또는 신문구독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이들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1~2개 지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이에 따른 주민 통근형태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진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역통근형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남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도시발달이 미약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진주시는 전국 차원에서 보면 지방 중소도시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우 넓은 세력권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들의 세력권을 인구와 산업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고, 주민들의 통근형태를 주택-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와 진주시 의료기관의 환자 통계자료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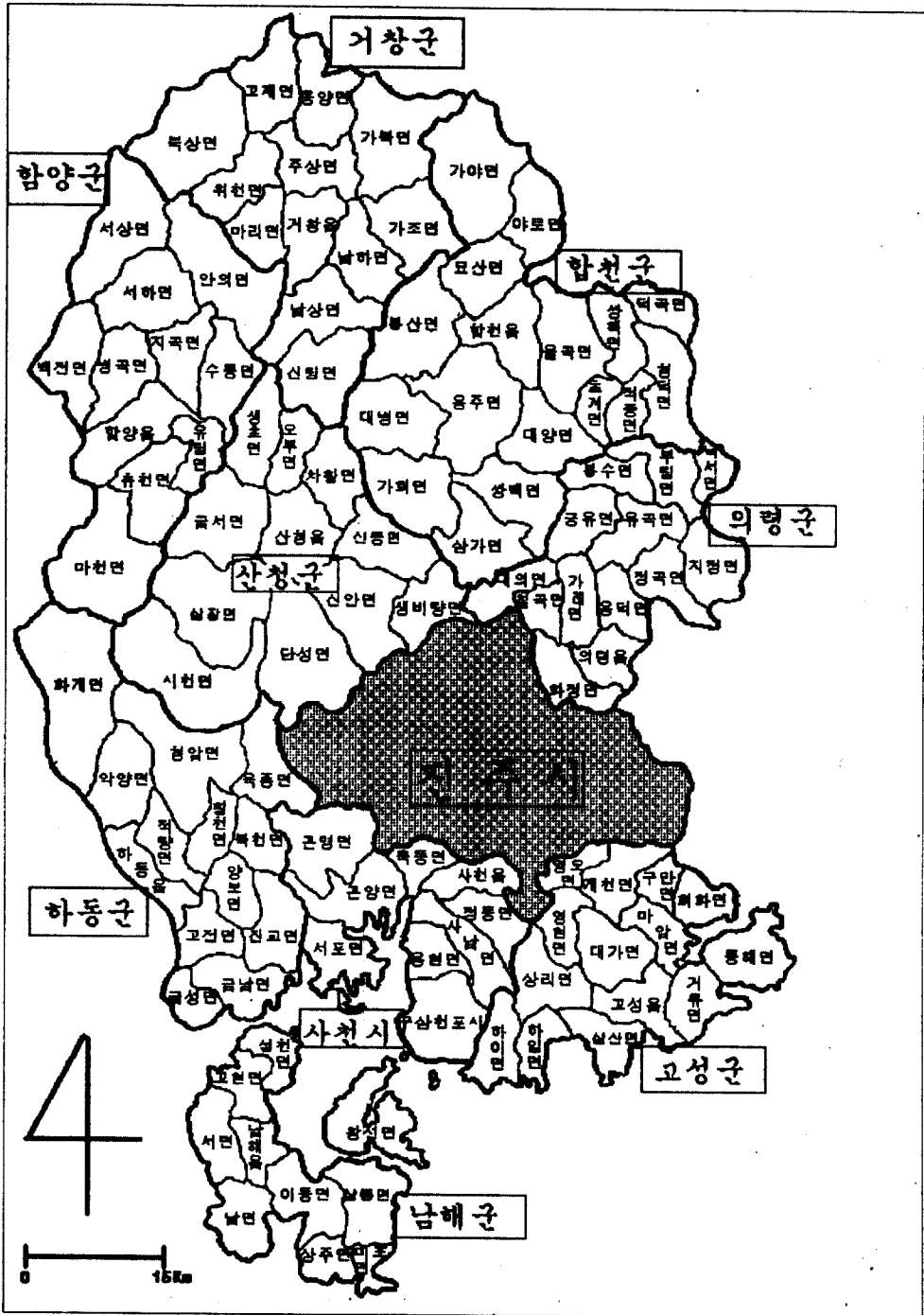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 경남 서부지역의 시·군 및 읍·면의 분포

3)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지역범위는 <그림 1>과 같이 행정구역상의 진주시¹⁾, 사천시²⁾,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0개 시·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이 범위의 지역을 본 연구에서는 '경남 서부지역'이라 명명한다. 여기에 포함된 지역들은 1990년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실시한 주택-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경남 시·군별 통근자료에서 진주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지역통근자의 10% 이상인 지역들을 발췌한 것인데, 이는 통상 '서부경남'으로 명명되는 지역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³⁾

경남 서부지역의 면적은 6,448km²로서 경남 면적(11,566km²)의 절반을 넘는 넓은 지역이지만, 서부지역 인구는 경남 인구의 1/4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서 진주시는 공간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남 서부지역은 진주시 세력권에 포함되는 '진주 도시권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지리산으로 둘러싸이고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 서부지역에는 시급(市級) 도시로서 진주시와 사천시가 있다. 사천시는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을 통합하였지만 여전히 도시규모가 작고 해안에 치우친 불리한 위치로 인해 중심지 기능이 매우 약하다. 또한 경남 서부지역에 산재하는 여러 읍급(邑級) 도시들은 이 지역이 지난 30년간 진행된 국가 주도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결과로 주변지역에 대한 그들의 중심지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진주시의 중심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크게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세력권의 공간적 범위로는 경남에서 가장 큰 중심지이지만 인구와 경제성장의 속도는 울산시와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 동부 또는 중부지역의 산업도시들에 비하면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통근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하여 통근과 역통근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주 도시권지역 주민들의 통근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통근행태 분석으로는 우선 1990년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실시한

주택-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진주시 경상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1990년과 1995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중심도시의 세력권 확장과 통근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주 도시권지역의 초·중등학교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교사집단을 선정한 것은 우선 자료수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교사수의 분포는 지역인구의 분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즉, 초·중등학교와 그 학생수는 지역 인구의 분포와 비례하며 학생수에 비례하여 교사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교사의 분포는 지역 인구의 분포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남 서부지역 교원명부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여 각 시·군별 및 읍·면별 교사수와 통근자수를 비롯한 기본적 통계자료를 작성하였고, 1997년 1월 말과 2월 초에 걸쳐 각급학교 통근 교사들을 상대로 통근행태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특정 교사들을 상대로 1997년 2월 동안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통근에 관한 선행 연구의 고찰

1) 통근의 개념

통근(commuting)은 '가정-직장을 오고 가는 여정(journey-to-work)'을 의미한다(Johnston, 1988). 즉, 통근이란 개인의 가정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는 직장까지, 또 직장으로부터 개인의 가정까지의 일상적인 통행을 의미한다. 통근은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일상적 인구이동으로 교통시설의 유·무 또는 그 수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통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형성되며 이는 도시의 공간패턴과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근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으로는 지역 교통망 계획뿐만 아니라 주거지구와 산업지구의 입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한 연구이다. 통근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의(市外)에서 시내(市内)로의 구심적 통근(centripetal commuting), 시내에서 시외로의 원심적 통근(centrifugal commuting), 그리고 시외에서 시외로의 수평적 통근(lateral commuting)이 흔히 발견되는 통근유형이다. 여기서 두번째 유형인 시내에 거주하면서 시외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원심적 통근을 역통근(reverse commut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다.

도시의 세력권을 연구하기 위해 흔히 통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통근의 목적지를 중심도시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도시에서는 고소득층 주민일수록 통근거리가 멀어진다고 다수의 연구가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도시의 교외지역은 주거 및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양호한 반면, 도심부는 각종 시설이 낡고 혼잡하며 범죄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여 다수의 중산층 백인들이 교외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심부에 입지한 직장에 통근하기 때문이다. 도시세력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통근권은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권과 일치하기 때문에 행정적 경제획정에도 긴요하게 활용된다. 미국의 SMSA(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와 프랑스의 ZPIU(Zone de Peuplement d'Influence Urbaine)가 바로 그 예이다.

통근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심도시가 기존의 시가지 또는 행정경계를 넘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도시성장에 따른 그 영향력의 변화, 그리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연계성 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통체계의 개선과 확충은 주민들의 기동성을 증대시켜 이미 설정된 행정경계는 지역을 구분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래서 새로운 공간단위의 재정립을 위한 기준으로 통근자료가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의 통근권은 기존의 도로망을 따라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O'Corner, 1980, 478).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 부근에 있던 직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을 때 직장 부근으로 이주할 것인가 아니면 통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흔히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Plane, 1981,

182).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가 근거리라면 통근할 것이지만, 너무 원거리여서 통근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 과중할 때는 이주를 선택할 것이다. 도시화의 진척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교외화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Mogridge(1979)는 London을 사례지역으로 행한 통근 연구에서, 중심도시 제조업체의 교외전출로 도심부에 거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높은 교통비 때문에 직장을 따라 교외로 이주하였는데, 도심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주거인구의 감소가 서비스업의 입지에 따른 전입인구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심부 지역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도시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지역문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통근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내에서 행하여진 통근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중심도시로의 통근' 혹은 '도시지역내에서의 통근'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며, 수도권내의 과밀문제 또는 교외화와 관련하여 통근행태를 연구한 논문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도시와 배후지간의 통근행태에 관한 연구중에는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주변 배후지에 의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구명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사례연구도 다수 있다. 서울시 주변 6개 교외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통근자의 특성을 분석한 文智仁(1987)의 연구는 교외지역에서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은 관리·사무직 근로자가 다수인데 반하여 중심도시에서 교외지역으로 통근하는 주민은 생산직 근로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용기회가 도심이나 도심부근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거주지는 도시의 행정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교외지역이 형성되면서 이들 교외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중심도시로 통근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근의 개념이 교외지역에서 중심도시로의 통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통근의 개념설정 은 미국의 도시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대

로 수용하는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許宇玆(1987)은 지방공업도시 울산시의 통근권과 통근자의 특성을 연령별·남녀별·직종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고찰하였다. 申鉉旭(1989)은 마산·창원 주변지역의 통근양상과 통근자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중심-주변지역간의 통근양상 변화를 시기적으로 고찰하여 통근권의 범위와 형태를 구명함으로써 도시발달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수한 사회적 계층집단인 교사들의 통근행태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다수 행하여졌다. 宋東鎭(1990)은 서울 교외지역 교사들의 근무지 이동과 거주지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공간행동과 공간인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원당읍, 하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성격을 달리하는 4개 지역 교사들의 공간행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교사들의 거주지 선정에 위한 공간행태를 직장지향형과 가족지향형 및 회귀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또 교사들의 근무지와 거주지의 관계에서 직주(職住)가 일치하지 않는 가구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는데, 직주분리의 이유는 자녀교육, 생활본거지, 편의시설, 배우자 직장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확인하였다.

캐나다 Vancouver의 도심부와 교외에 입지한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근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한 Ley(1985)의 연구에서는 교외에 입지한 회사 근로자들의 통근시간이 도심부에 입지한 회사 근로자들의 통근시간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의 주거가 대부분 도시 변두리에 집중되었고 도심부의 차량통행이 교외로의 통행보다 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출퇴근시의 교통상황은 대도시 도심부에 입지한 사무업의 교외이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통근행태를 분석한 Hanson and Johnston(1985)은 최근에 교통수단과 교통로의 개선으로 통근거리가 크게 연장되는 추세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들은 여전히 주거와 직장이 밀착된 짧은 통근거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는

농업경제가 급속한 공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통근하는 주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으로부터 중심도시로의 통근자는 미숙련 남자근로자들과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근로자들이 많고, 중심도시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역통근 인구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주로 행정관리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있다(Fuchs and Demko, 1977).

이상의 사례연구들에서 확인된 통근유형과 비교한다면, 경남 서부지역의 진주 도시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통근유형은 주변부로의 역통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 도시에서의 통근유형보다는 오히려 구소련이나 동구권 도시에서의 통근유형과 유사한 점이 더 많다.

3) 역통근에 관한 연구

역통근은 제조업체들을 비롯한 여러 도시기능들이 교외 및 주변 농촌지역으로 원심적 확산을 하였으나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도시내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채 주변지역의 직장으로 통근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주민들의 거주지로 선호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성장격차가 커지면서 주민들은 도시의 주변지역보다는 도시의 내부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와 같이 도시 증산층 인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서 주변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특히 진주시와 같은 지방 중심도시에서는 주변부의 인구가 도시로 거주이전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와 함께 도시에서 주변 배후지로 역통근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도시에서도 역통근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O'Corner(1980)은 교외지역에서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은 white collar직 종사자가 대다수인데 비해 중심도시에서 교외지역으로 역통근하는 주민은 blue collar직 종사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Melbourne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미국의 Chicago에서도 제조업체의 주변지역 확산으로 도시내부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생산직 근로

자들에 의한 역통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London에서는 사무업 기능의 주변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관리·사무직 근로자들이 역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 도시들에서도 초기에는 주택의 교외화에 의해 교외지역에서 중심도시로의 통근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용의 교외화에 의해 중심도시에서 교외지역으로의 통근, 즉 역통근 현상이 크게 현저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Davis(1993)는 미국 Oregon지역의 Portland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부부근로자의 경우 그들의 주거를 배우자의 직장보다 밀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 근로자들의 통근거리는 보다 길어지며, 부녀자들의 직장은 교외지역보다는 중심도시에 입지하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노동자들이 역통근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李紫苑(1990)은 수도권 인구이동과 통근행태 연구에서 경기도의 수원시, 안산시, 화성군, 용인군 등 4개 지역을 서울로부터의 유출통근지역으로 역통근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교외에서의 공업단지 개발과 서울소재 대학교의 분교 입지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許晶嬾(1989)는 충북 진천군 교사들의 통근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역통근을 강조하였다. 진천군 교사들중에서 통근자의 64.8%가 중심도시인 청주로부터의 역통근자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역통근 현상은 농촌에 근무하는 전문기능직 근로자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통근형태라고 보았다. 또한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역통근하는 교사들중 40대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그 이유는 자녀 연령층이 14~19세로 이들의 교육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 서부지역 교사들의 통근행태도 이러한 진천군의 사례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3.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의 인구와 세력권

1) 인구감소와 경제적 낙후성

지역의 인구조건과 그 변화는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발전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데 필수적으

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지역의 균형발전, 환경보전, 고용기회의 증대, 인력자원의 개발, 기술개발 등은 인구의 제반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규모, 성장, 구조, 분포 및 이동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간의 경남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경남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계획적으로 육성한 공업도시 울산시와 창원시에서 인구증가가 계속되었고 부산시로부터의 전출공업을 수용하는 김해시와 양산시에서도 전입인구에 의한 빠른 인구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경남의 인구증가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와는 달리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지역의 낙후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중 중심도시 진주시에서만 완만한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며, 사천시와 고성군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공업단지 건설로 미약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서부지역 7개 군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의령군은 1980년 64,175명에서 1995년 39,112명으로 지역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여 경남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외의 군지역들도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인구의 1/3 정도를 상실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의 소규모 중심지들도 심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표 1>의 내용과 같이, 1980~1994년 기간에 진주시의 인구는 지속적 성장으로 28.4%의 증가를 이루었고, 구삼천포시, 고성읍, 함천읍의 인구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증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천읍을 비롯한 6개 읍들은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특히 산청읍은 인구의 1/4을 상실하였으며, 하동읍, 의령읍, 함양읍도 대략 인구의 15%를 상실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은 이러한 만성적 인구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경제가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중심지들은 도시기능의 유지를 위한 최소요구치의 부족으로 교육, 문화, 의료 등 제반 서비스기능이 약화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매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표 1.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의 인구변화: 1980~1994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4년	1980~94증감수	증감률(%)
구진주시	202,753	227,441	258,365	260,363	57,610	28.4
구삼천포시	64,723	62,506	62,824	65,697	974	1.5
사천읍	16,172	15,786	14,237	15,809	-363	-2.2
의령읍	12,172	11,786	11,667	10,127	-2,020	-16.6
고성읍	25,433	26,190	23,865	26,532	1,099	4.3
남해읍	16,449	16,339	15,063	15,364	-1,085	-6.6
하동읍	17,932	16,668	14,997	14,788	-3,144	-17.5
산청읍	11,770	10,949	9,216	8,808	-2,962	-25.2
함양읍	23,389	21,863	19,332	20,161	-3,228	-13.8
거창읍	40,188	38,954	39,651	39,304	-884	-2.2
합천읍	12,313	13,637	12,958	13,224	911	7.4
합 계	443,269	462,119	482,175	490,177	46,908	10.6

자료 :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각 연도.

년 악화되고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 지역을 전국 차원의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우선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경남 서부지역의 경제는 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주로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지역으로, 북부내륙은 산악관광지역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지역의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남 서부지역의 낙후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남 지역에는 9개의 국가공업단지가 있고 공업용지면적은 143km²이며 1996년 현재 1,087개 업체가 입주하여 21.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경남 동부 및 중부지역에 입지하며 경남 서부지역에는 단 한개의 국가공단도 입지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 56개 지방공업단지 중 진주시⁴⁾와 사천시⁵⁾에 2개의 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서부지역의 8개 군지역은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각각 경남의 1% 미만이며, 인구 1,000명당 제조업 고용도 각각 50명 미만으로 제조업의 거의 공백지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남지역은 제조업이 매우 밀집된 동부-중부지역과 제조업 공백지역인 서부지역으로 분명하게 양분된다.

지역총생산(GRP)이 주민소득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활동이 활발한 곳이 주민소득도 높은 곳이다. 1990년 경남의 지역총생산은 약 1조7천억원으로 1980년에 비해 4.2배 증가한데 비해, 서부지역은 2.8배 증가에 그쳤다. 1980년 경남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124만원이었는데 서부지역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53만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에도 계속되어 경남 평균이 472만원인 데 서부지역은 그 절반 수준인 218만원이다(신동호·안재락, 1994). 경남 서부지역은 지역내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인구 측면에서도 활력있는 생산연령층이 부족하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하다. 1992년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52.2%이나, 서부지역의 군지역 재정자립도는 20% 전후이다.

2) 진주시의 의료권 분석

모든 도시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범위의 세력권을 갖는다. 도시에 존재하는 행정, 상업,

보건-위생,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시설들은 비단 도시내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Noin, 1995). 진주시는 경남 서부지역에서 위치상으로도 중심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진양군과 구진주시가 통합되었는데, 이 중 구진주시가 주변지역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행정, 문화, 교육, 의료 등 제반 서비스 기능에서 강력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의 인구는 34만명이며 이의 약 3/4에 해당하는 26만명은 구진주시의 인구이다.

진주시의 세력권에 포함되는 배후지로서 방대한 면적의 경남 서부지역은 중심지 진주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진주시가 부산 대도시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지리적·경제적 거리에 위치하고 또 과거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남 서부지역의 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 즉, 경남 서부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은 과거 진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고 지금의 생활권도 진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가 경남 서부지역에 대해 수행하는 중심지 기능의 세력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상대병원을 사례로 지역 주민들의 병원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표 2>의 내용과 같이, 1995년 경상대병원을 이용한 환자수의 약 88%가 경남 서부지역 주민이었다. 이 병원을 이용한 시·군별 환자수를 해당 시·군의 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을 산출하고 이를 진주시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존도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된 경남 서부지역 각 시·군들의 진주시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존도는 1990년에 비하여 1995년에는 거의 2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변지역에 대한 진주시의 중심지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세력권도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의 의료서비스 의존도는 평균 12.8%인데, 이 중에서 사천시(22.9%), 하동군, 남해군이 평균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함양군, 산청군, 고성군, 합천군, 의령군, 거창군(4.1%)의 순으로 의존도가 점차로 낮아진다. 1995년의 경우에는 평균 21.5%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특히 사천시(24.9%), 산청군, 하동군

표 2. 진주시의 의료권 : 경상대병원의 환자 분포

	1990년		1995년	
	환자수	지역인구에 대한 환자수 비율(%)	환자수	지역인구에 대한 환자수 비율(%)
진주시	51,469	15.7	108,587	32.4
사천시	26,545	22.9	30,631	24.9
산청군	4,250	8.5	10,836	23.4
하동군	11,084	16.8	14,754	22.4
남해군	9,310	13.0	12,107	17.7
고성군	4,489	6.6	9,172	13.1
합천군	3,957	5.4	4,217	6.0
의령군	2,204	4.5	1,714	4.4
함양군	5,398	9.8	8,963	17.5
거창군	3,194	4.1	1,512	2.0
환자수 소계	121,900	12.8	202,493	21.5
총환자수	138,055		228,786	

자료 : 경상대학교 병원(1995).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의 의존도가 평균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남해군, 합양군, 고성군의 의존도는 약 15%에 가깝고, 합천군, 의령군, 거창군은 6% 이하의 낮은 의존도를 나타낸다. 1990년에 비하여 1995년에는 진주시에 대한 경남 서부지역의 의료 서비스 의존도가 거의 모든 시·군에서 크게 높아졌으나 의령군과 거창군은 오히려 낮아졌다.

지역에 대한 진주시의 중심지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의존도의 공간적 분포는 진주시로부터 근거리로 입지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원거리로 가면서 낮아지는 거리조락성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마산시·창원시 등 대도시 방향으로 위치한 거창군과 의령군은 그렇지 않은 군지역들에 비하여 진주시

표 3. 경남 서부지역 시군별 통근-통학 현황(1990년)

통근-통학 출발지	외지로의 통근-통학자수(S)	진주시로의 통근-통학자수(T) (총수: 16,785명) ^{주)}	진주시로의 통근-통학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T/Sx100]
구진양군	8,512	7,576	89.0
구삼천포시	2,856	1,124	39.4
구사천군	3,723	2,863	76.9
의령군	1,546	387	25.0
고성군	1,953	441	22.6
남해군	190	105	55.3
하동군	1,077	535	49.7
산청군	1,211	1,054	87.0
합양군	747	142	19.0
합천군	660	123	18.6
거창군	396	14	3.5
경남 서부지역 합계	22,871	14,364	62.8

주 : ()내의 수치는 진주시에 도착하는 모든 지역의 통근-통학자수.
자료: 통계청, 1990, 인구-주택센서스, 제3권(통근-통학인구), 401~415.

표 4. 진주시로부터의 통근-통학 현황과 그 목적지 : 1990년

통근-통학 목적지	구진양군	구삼천포시	구사천군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양군	합천군	거창군	그외지역	합계
통근-통학자수	3,643	583	2,073	179	299	221	667	1,561	205	271	52	1,486	11,240
비율(%)	32.4	5.2	18.4	1.6	2.7	2.0	5.9	13.9	1.8	2.4	0.5	13.2	100%

자료: 통계청(1990), 401~415.

이러한 의료서비스 의존도의 향상은 경남 서부 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차츰 감소하

고 있는데, 이는 진주시가 경합하는 대도시(대구시와 마산시·창원시)에 비하여 성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세력권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즉, 진주시의 중심지 기능은 경남 서부지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경합하는 대도시(대구시와 마산시·창원시) 방향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3) 진주시의 통근-통학권 분석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상호작용 정도는 주민들의 이동량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이동은 주민들의 통근-통학을 포함하는 일상적 이동이며, 이로서 결정되는 통근-통학권은 고용 중심지의 공간적 편차가 심할수록, 승용차의 보급과 교통망의 확대가 클수록, 또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갖는다. 서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통근-통학권의 범위가 대체로 40~50 km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Noin, 1995),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경우 50km, 부산과 대구의 경우 40km가 통근-통학권을 밝히고 있다(박태화, 1996).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통근-통학권 측정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표 3〉과 〈표 4〉는 경제기획원이 1990년 실시한 인구-주택센서스에 나타난 진주시와 주변지역 간의 통근-통학자수를 정리한 것이다. 진주시를 제외한 경남 서부지역의 전체 통근인구는 22,871명인데 이들의 62.8%(14,364명)가 진주시로 통근한다(표 3). 한편 진주시로 통근하는 전체 인구는 16,785명인데 이 중 경남 서부지역으로부터 통근하는 인구는 85.6%(14,364명)를 차지한다. 진주시로의 통근율(T/S)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양군(89.0%)이고, 이어서 산청군, 구사천군, 남해군, 하동군이 약 5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며, 구삼천포시, 의령군,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의 순으로 통근율이 낮아진다. 함양군과 합천군의 통근율은 20% 이하로 비교적 낮고, 거창군은 3.5%로 극히 낮다.

이들 통근율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진주시로부터의 거리조락성과 도시간의 세력권 경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진양군, 산청군, 구사천군의

통근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진주시와의 접근성 때문이고, 근거리임에도 구삼천포시의 통근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독자적 배후지인 구사천군과 고성군에의 통근율이 높기 때문이다(표 3). 의령군과 고성군의 낮은 통근율은 마산시·창원시에 대한 진주시의 경합관계를 의미한다. 한편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의 통근율이 매우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지역적 고립성과 거창읍을 중심지로 하는 통근권 형성, 그리고 대구시와 남원시에 대한 진주시의 경합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합천군에는 대구시와 거창읍으로의 통근자가 많고, 함양군에는 거창읍과 남원시로의 통근자가 많으며, 거창군에는 대구시와 남원시로의 통근자가 많다. 거창군 일대에 대한 진주시의 영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와 같이, 이 일대는 거창읍을 중심으로 비교적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진주시로부터 외지로의 통근자수는 11,240명인데, 이들 중 경남 서부지역으로의 통근(역통근)자가 86.8%를 차지한다(표 4). 가장 통근율이 높은 지역은 구진양군으로 전체 통근자의 32% 이상을 차지하며, 이어서 구사천군과 산청군이 각각 13% 이상을, 하동군과 구삼천포시가 5%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 의령군, 거창군의 순으로 그 점유율은 크게 낮아진다. 진주시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이와 같은 통근현상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한 거리조락성과 타 도시들과의 경합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근자들의 도착-출발자수 비율에 따라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진주시의 세력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차세력권 지역 : 구진양군, 구사천군, 산청군
- 2차세력권 지역 : 구삼천포시, 하동군, 남해군
- 3차세력권 지역 : 의령군,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
- 한계세력권 지역 : 거창군

4. 경남 서부지역의 주민 통근형태

수 있다.

1) 구심적 통근과 원심적 통근

2) 진주 도시권지역 교사들의 통근형태

미국의 중상류층 주민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교외지역에 거주하면서 중심도시에 직장을 갖는다. 그래서 미국 도시에서는 구심적 통근이 매우 중요한 통근유형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문화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의 불균형적 입지로 인하여 거주공간으로 선호되는 지역은 교외나 농어촌이 아니라 도시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기의 자녀를 둔 청장년층의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농어촌 인구의 도시이주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1980년대에 와서는 도시에 과잉집중된 산업체들이 활발한 원심적 입지변동을 함으로써 이제 도시권지역의 일터는 도심부뿐만 아니라 근교지역 또는 보다 원거리의 도시 주변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도시에 거주하는 여러 계층의 대다수 주민들은 학령기의 자녀교육과 도시서비스 혜택을 고려하여 교외지역으로 이주하는 대신 도시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변지역의 직장으로 역통근하는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진주시내에 입지한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구진주시의 2,361명과 구진양군의 563명으로 모두 2,924명이며 이들의 97%가 진주시에 거주한다. 시외지역에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교사는 모두 90명으로 불과 3%에 해당하는데 이 비율은 구진주시와 구진양군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경남 서부지역에서 1980년대까지는 진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통근유형의 대부분은 구심적 통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되었고 진주시는 유출인구의 상당수를 수용함으로써 인구성장을 계속하였다. 진주시 주변지역에 공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업체들이 분산입지하였으나 인구의 U-turn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많은 중상류층 주민들은 배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에 산재하는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역통근하고 있는데 역통근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 통근자의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통근자의 이동방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근 시간에는 시외로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외곽방향의 도로가 심한 정체현상을 나타내는 반면에 시내로 진입하는 방향은 크게 붐비지 않으며, 퇴근 시간에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일상적으로 목격할

그러나 진주시 세력권에 속하는 경남 서부지역 9개 시·군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형태를 보면, 진주시 교사들의 통근형태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표 5). 전체 교사의 약 절반이 외지(다른 시·군)에서 통근하는데 통근자의 1/3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교사들이다. 중심도시인 진주시와 배후지인 경남 서부지역에서 전개되는 교사들의 통근유형은 분명한 역통근임을 알 수 있다. 즉, 주변지역에서 진주시로 통근하는 교사는 전체의 3%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진주에서 주변지역으로 통근하는 교사는 무려 2,222명으로 전체 교사의 37.5%, 전체 통근자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각 시·군별 전체 교사수에서 통근자의 점유율(B/A)은 의령군(81.3%)이 가장 높고 이어서 산청군,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의 순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진주시에 근접한 지역이거나 마산시·창원시 또는 대구시 등 다른 대도시와 교통연결이 용이한 지역들이다(표 5). 반면에 이 도시들로부터 접근도가 불리한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의 교사통근율은 낮다. 특히 거창군은 교사통근율이 불과 7.5%이며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율도 2.6%에 그치고 있어 거의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시·군별 전체 교사수에서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자수가 차지하는 점유율(C/A)은 산청군(78.1%)과 하동군(59.6%)이 가장 높고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 합천군,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7.5%) 순으로 나타난다(표 5). 여기서 의령군은 교사 통근율은 가장 높으면서도 진주시로부터의 통

표 5. 진주 도시권지역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 현황

(단위 : 명)

학교 소재지 (시·군별)	전체 교사수[A]	전체 통근자수[B] (통근율 : B/Ax100%)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자수[C] (역통근율 : C/Ax100%)	전체통근자 중에서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자 점유율 (C/Bx100%)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통근자수[D]
사천시	1,062	517 (48.7)	504 (47.5)	(97.5)	13
산청군	530	417 (78.7)	414 (78.1)	(99.3)	3
하동군	612	391 (63.9)	365 (59.6)	(93.4)	26
남해군	707	285 (40.3)	254 (35.9)	(89.1)	31
고성군	657	434 (66.1)	224 (34.1)	(51.6)	210
합천군	660	345 (52.3)	221 (33.5)	(64.1)	124
의령군	434	353 (81.3)	126 (29.0)	(35.7)	227
함양군	513	158 (30.8)	95 (18.5)	(60.1)	63
거창군	743	56 (7.5)	19 (2.6)	(33.9)	37
계	5,918	2,956 (49.9)	2,222 (37.5)	(75.2)	734

자료: 경상남도 교원단체연합회, 1996, 교원명부

근자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은 통근교사들의 상당수가 마산시와 창원시에서 통근하기 때문이다. 함양군과 거창군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율이 매우 낮다.

시·군별 전체 통근자에서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자가 차지하는 점유율(C/B)은 산청군,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이 약 90%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합천군, 함양군, 고성군, 의령군, 거창군(33.9%)의 순으로 낮아진다(표 5). 이러한 점유율의 분포를 분석하면, 진주시로부터 근거리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원거리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어 거리증가에 따라 통근자수가 점감하는 거리조락성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주시로부터의 통근점유율이 낮은 의령군과 고성군은 마산시·창원시에 인접하고 있어 진주시와의 세력권 경합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경남 서부지역 통근교사를 대상으로 진주시 세력권의 범위와 그 영향력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통근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미 앞에서 분석한 의료권의 범위 및 의료서비스 의존도의 분포와 비슷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 진주 도시권지역의 역통근과 세력권의 형태

1) 읍·면별 역통근교사 점유율과 도시세력권 획정

경남 서부지역의 읍·면 단위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사들중 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교사, 즉 중심지에서 주변지역으로 역통근(逆通勤)하는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지역의 진주시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근무지 읍·면에 거주하지 않고 중심지에서 역통근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포함한 서비스기능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시 역통근교사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진주시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가 큰 지역이며, 나아가 진주시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한다고 간주한다. 또한 이러한 진주시 역통근교사의 읍·면별 점유율은 진주시의 도시세력권 획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표 6>의 내용은 경남 서부지역의 각 시·군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 중 진주시 역통근

교사의 점유율을 읍·면별로 정리한 것이다. 진주시를 제외한 경남 서부지역 9개 시·군의 진주시 역통근교사 점유율을 해당 읍·면에 대한 진주시 영향력의 크기로 간주하여 도시세력권을 구분하는 지표로 삼았다.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진주시의 세력권을 4개 급간으로 구분함에 있어 역통근교사의 점유율(C/A)이 20% 이상인 지역을 1차·2차·3차의 3개 세력권으로 구획하고, 점유율 20% 이하의 지역들은 진주시 한계세력권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경남 서부지역의 총 110개 읍·면 단위의 지역들을 각각의 역통근교사 점유율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그림 2>와 같이 지도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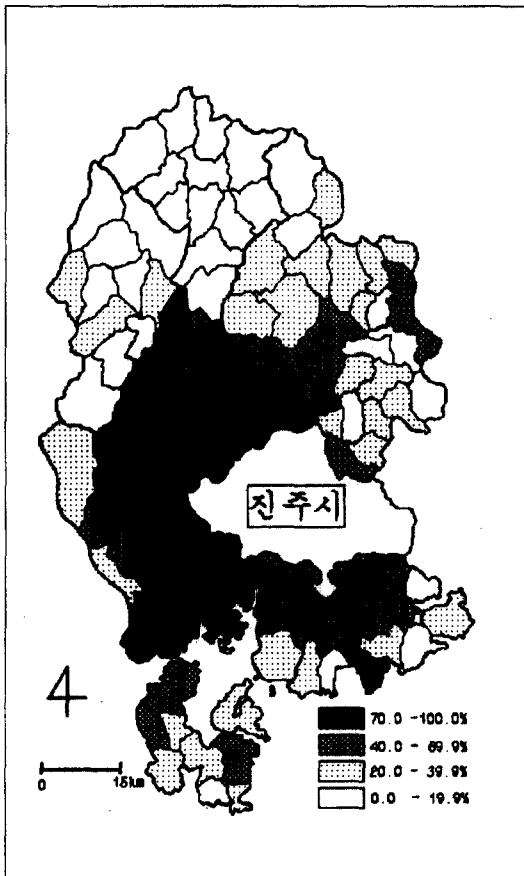


그림 2. 경남 서부지역 읍·면별 진주시 역통근교사 점유율

진주시의 1차 세력권은 역통근교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의 지역으로 지역 교사집단의 절대 다수가 진주시 거주 교사들로 구성되어 '진주시 역통근자들의 강세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권역은 모두 25개 면(面)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진주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5개 시·군에 소속되는 지역들이다. 이들 중 산청군과 하동군은 9개와 8개 면이, 그리고 사천시와 고성군은 4개와 3개 면이 이 권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의령군은 1개 면만이 포함되고, 남해군, 함천군, 함양군, 거창군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으며, 읍(邑)지역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진주시의 2차 세력권은 역통근교사의 점유율이 40~70%의 지역으로 '진주시 역통근자들의 우세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권역도 역시 25개 읍·면으로 구성되는데, 사천시·하동군·산청군에서 각각 4개·3개·2개 읍·면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1차 세력권에 속하고 남은 지역들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해군의 4개 면과 함천군의 5개 면은 처음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지역들이다. 의령군의 2개 면과 고성군의 5개 면도 2차 세력권에 속한다. 1차 세력권에서와 마찬가지로 함양군과 거창군에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진주시의 3차 세력권은 역통근교사 점유율이 20~40%의 지역으로 '진주시 역통근자들의 약세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진주시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는 7개 시·군의 29개 읍·면들로 구성된다. 함천군·의령군·남해군·고성군에서 각각 9개·6개·5개·3개의 읍·면이, 그리고 하동군의 2개 면이 이 권역에 포함된다. 함양군은 처음으로 함양읍과 2개 면이 여기에 포함되며, 특히 사천시의 구삼천포시와 6개 군의 읍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산청군의 모든 읍·면이 이미 1차 및 2차 세력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산청군에는 이 권역에 포함되는 읍·면이 하나도 없다.

진주시의 한계세력권은 역통근교사 점유율이 20% 이내의 지역으로 진주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극히 미약하게 받는 지역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31개 읍·면들은 거창군의 거창읍을 포함한 12개 읍·면, 함양군의 8개 면, 의령군의 4개 면, 함천군과 고성군의 각 3개 면, 남해군의 상주면 등이

표 6. 진주시 역통근교사 점유율에 따른 도시세력권 구획

	1차 세력권 (70.0~100.0%) ^{주)}	2차 세력권 (40.0~69.9%)	3차 세력권 (20.0~39.9%)	한계세력권 (0.0~19.9%)
산청군	차황면 단성면 생초면 신안면 금서면 생비량면 삼정면 신동면 시천면	산청읍 오부면		
사천시	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구삼천포시	
하동군	황천면 북천면 고전면 청암면 금남면 옥종면 금성면 양포면	악양면 적량면 진교면	하동읍 화개면	
고성군	삼산면 영현면 개천면	상리면 대가면 영오면 구만면 마암면	고성읍 하이면 동해면	하일면, 회화면 거류면
의령군	대의면	화정면 낙서면	의령읍 궁류면 칠곡면 유곡면 용덕면 정곡면	가례면 지정면 부림면 봉수면
남해군		삼동면 서면 고현면 실천면	남해읍 이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	상주면
합천군		청덕면 가회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합천읍 봉산면 야로면 쌍채면 울곡면 초계면 덕곡면 대병면 용주면	묘산면 가야면 적중면
함양군			함양읍 수동면 백전면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지곡면 안의면 서상면 서하면 병곡면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계면 복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읍·면수	25	25	29	31

주 : 읍·면별 전체 교사수에서 진주시로부터의 통근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교원명부(경남교원단체연합회, 1996)에서 재정리함.

다. 거창군의 모든 읍·면이 이 권역에 속하고, 산청군·사천시·하동군에는 한계세력권에 속하는 읍·면이 하나도 없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의 세력권은 경남 서부지역에서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별로 보면 시·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진주시에 인접한 사천시와 산청군 및 하동군의 대부분 지역과 고성군의 서부지역은 1차 및 2차 세력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진주시의 강한 영향력을 받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남해군은 상주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차 및 3차 세력권에 포함되어 진주시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게 미치는 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창군은 진주시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한계세력권 지역이며 함양군과 합천군 및 의령군의 대부분 지역과 고성군의 동부지역은 진주시의 영향력이 매우 약하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2) 중심지들의 경합과 세력권의 형태

진주시의 세력권 형태를 <그림 2>의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우선 세력권의 윤곽이 크게 보아 대체로 동심원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동부지역에서는 상당히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는 동부방향에 위치한 의령군에서는 진주시 세력권이 마산시·창원시와 강한 경합상태에 있고, 또 고성군에서는 진주시 세력권이 마산시, 통영시 및 사천시와 경합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교원명부를 통하여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령군의 경우 거의 모든 읍·면들이 75% 이상의 높은 교사통근율을 갖는다(그림 3). 그러나 전체 교사중에서 진주시의 역통근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의면, 화정면 및 낙서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가례면, 지정면, 부림면, 봉수면의 진주시 역통근교사 비율은 각각 20% 이하이며, 의령읍, 칠곡면, 정곡면, 궁류면, 유곡면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33~49%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점유율의 대부분은 창원시와 마산시의 통근교사들이 차지한다. 따라서 의령군은 대략적으로 보아서는 진주시와 창원시·마산시의 중간지대에 자리잡고 있지만, 좀더 엄밀

한 의미에서는 진주시보다 창원시·마산시 세력권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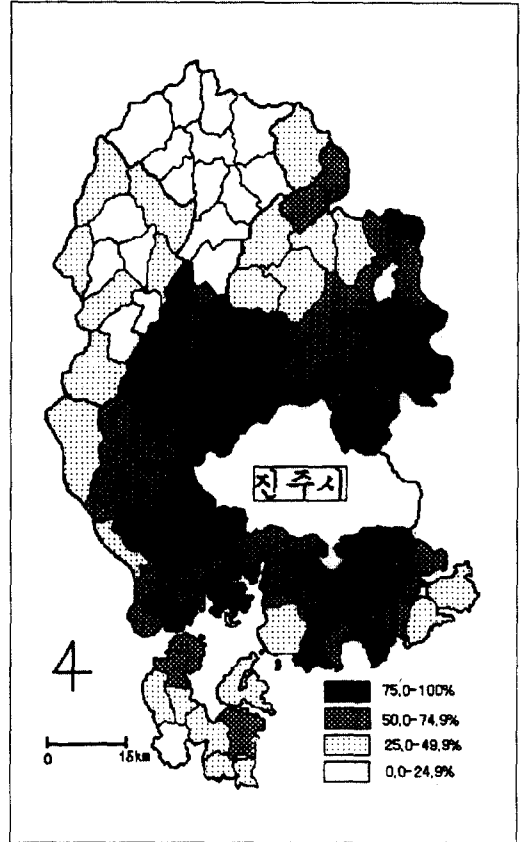


그림 3. 경남 서부지역 읍·면별 전체 교사중 통근교사 점유율

한편 고성군은 여러 도시들의 세력권이 중합되는 지역인데, 진주시에 인접한 삼산면과 상리면을 포함하여 7개 면은 진주시 세력권에 속하지만, 하일면과 하이면은 사천시 세력권에 속하고, 회화면과 마암면은 마산시 세력권에 속하며, 고성읍과 동해면 및 거류면은 진주시와 마산시, 통영시, 사천시의 세력권이 중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고성군 지역은 진주시의 세력권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긴 하지만 어떤 도시의 세력권에 도 압도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경합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함양군은 진주시와 거창읍의 세력권이 경합되는

지역이며, 합천군은 진주시와 대구시의 세력권이 결합되는 지역이다. 거창읍은 지리적 원격성 때문에 비교적 독자적인 소규모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거창읍을 경남 북서부 지역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진주시 세력권의 서부와 남부에서는 결합도시가 없어 동심원의 형태가 거의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세력권에 포함된 읍들이 미약하나마 작은 세력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진주시의 1차 세력권에 포함되는 산청군의 대부분 지역과는 달리 산청읍은 2차 세력권에 속하며, 사천시의 구삼천포시와 남해군의 남해읍이 3차 세력권에 해당되는 것은 미약하나마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는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의 통근자료에 의한 1996년 진주시 세력권의 형태를 앞의 3장에서 언급한 1990년 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에 의한 진주시 세력권과 비교하면 양자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약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즉 1990년에는 하동군이 진주시의 2차 세력권에 포함되었는데 1996년에는 1차 세력권에 포함되는 점이 다르다. 이는 진주시의 세력권이 동부방향으로는 창원시·마산시에 대해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서부방향으로는 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교사들의 역통근 원인과 문제점

경남 서부지역의 읍·면에 입지한 대부분의 학교는 공립학교이며,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경남 교육청의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한 학교에 일정기간(4~5년) 근무하면 급지(級地)가 다른 학교로 전보된다. 학교별 급지는 일반적으로 도시와의 통근거리에 따라 결정하는데 경남 서부지역에는 진주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낮은 급지이다. 처음 임용되는 교사 초년기에는 낮은 급지의 학교로 발령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기간 근무하면 보다 높은 급지의 학교로 전보될 수 있는데, 약 7~8년 정도 경과하면 진주시나 마산시 또는 창원시 등 1급지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다. 1급지 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면 낮은 급지의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교사들의 생애주기를 이러한 근무제도와 관련시켜 보면, 미혼 또는 신혼기에는 벽지 또는 낮은 급지의 학교에 근무하다가 자녀가 학령기에 들면 높은 급지의 도시 학교로 전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자녀가 2~3명으로 증가하고 큰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시기가 되면 다시 낮은 급지의 학교로 전보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의 역통근 이유는 자녀교육, 문화시설, 배우자 직장, 하숙이나 자취하기 어려운 현지의 분위기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 낮은 급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높은 급지의 학교로 전보될 것을 기대하면서 현지에 주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수 교사들은 읍·면지역에는 교육·문화·의료시설을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결국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도시로 정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교사가 현지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정착할 수 있는 경우는 연고지의 교사나 미혼 또는 신혼기의 교사들로 극히 제한된다. 도시로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들과 직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맞벌이 교사의 경우에는 현지 정착보다는 가능하면 통근을 선택한다. 미혼 여교사들은 현지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기에는 주택의 구조나 시장까지의 거리 및 부락의 분위기가 적절치 못하여 통근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사들은 강의 출석과 도서관 이용을 위해 통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의 역통근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한 승용차의 보급과 관련이 있다. 설문에 응답한 80%의 교사들이 자가용 승용차 또는 카풀제로 통근하며 버스로 통근하는 교사들은 20%에 불과하다. 통근 교사들의 대부분은 최근 4~5년간에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이보다 과거에는 주로 버스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과거에는 통근수단이 불리하였기 때문에 통근교사의 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다. 최근에는 도로의 확장 및 포장률 비롯한 교통로 사정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통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평균 15만원 전후로서 현지에서 하숙하거나 자취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들의 역통근은 촌락과 도시간의 부동산 가격상승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확인된다. 설문 에 응답한 교사들의 상당수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진주시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는 농어촌의 토지와 주택가격은 거의 정체된 상태였는데 비하여 도시의 토지와 주택가격은 투기붐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폭등 하던 시기였다.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인구전출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과 서비스시설 입지의 어려움이다. 경남 서부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읍·면지역에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각종 서비스시설의 입지에 필요한 최소요구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인구전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인구감소에 따라 면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폐교 현상은 이제는 중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설들을 읍·면지역에 입지시키는 것이 점차로 어렵게 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는 한 교사들을 비롯한 중심도시 주민들의 역통근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역통근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퇴근시간이 되면 심한 경우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지역사회를 떠난다. 방과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접할 수가 없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가 발생해도 이튿날이 되어야 알 수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통근교사들을 소득수준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출·퇴근시의 자가용 승용차 행렬은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통근하는 교사들을 중점적인 사례로 조사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의 일반 공직자나 기업체 직원들도, 구체적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들과 유사한 근무조건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의 경우와 유사한 통근행태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려고 한다.

6. 맺는말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 서부지역 중심지들의 세력권 변화와 이에 따라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에 나타나는 주민 통근행태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 주택-인구센서스의 통근-통학자료, 진주시 경상대병원의 환자 통계자료,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통근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경남 서부지역 소규모 중심지들은 배후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지역산업이 낙후됨에 따라 세력권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진주시의 세력권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진주시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중심지들의 존립을 더욱 어렵게 하며, 생활편익시설을 비롯한 서비스시설의 지역간 차이는 중심-주변간 역통근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교사들의 역통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는 경남 서부지역에서 가장 넓은 세력권을 형성한다. 그러나 진주시 이외의 소규모 중심지들은 진주시 세력권 내에서 매우 작은 세력권을 갖는데 그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 진주시의 세력권 형태는 서부방향으로는 거리조각성을 반영하면서 동심원 형태를 나타내지만, 동부방향으로는 마산시·창원시와의 경합으로 세력권이 매우 축소되며, 북부방향의 거창군지역에는 세력권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진주시의 영향력이 경남 서부지역의 하위 중심지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작용하지만, 타 대도시와의 경쟁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증거가 된다.

경남 서부지역 교사들의 역통근 행태는 학교가 입지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농어촌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이에 따른 서비스 시설의 부족을 포함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사들의 역통근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교사계층이 아닌 다양한 직종의 대부분 근로자들도 교사들과 유사한 통근행태를 선

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어촌의 소규모 중심지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과감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註

- 1) 1995년 1월 1일부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단위인 진주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진주시와 구진양군을 통합하여 진주시로 다룬다.
- 2) 1995년 5월 1일부로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어 하나의 행정단위인 사천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사천군과 구삼천포시를 통합하여 사천시로 다룬다.
- 3)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지역계획에서는 경남 21개 시·군 행정구역(1997년 기준)을 기준으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8개 행정구역을 西部地域으로, 울산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등 4개 행정구역을 東部地域으로, 그리고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등 9개 행정구역을 中部地域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지역통근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의령군과 고성군을 위의 8개 행정구역과 함께 西部地域에 포함시켜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 4) '상평공단'으로 불리는 진주지방공업단지는 1978년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되었고, 1996년 현재 이 공단에는 345개 업체에 9,900명이 취업하고 있다.
- 5) 사천시의 '사남공단'은 1991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항공기 부품업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경남 서부지역의 공업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1994년 착공하여 개발중인데 1998년 개발완료되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文 獻

강영옥, 1987, 서울시 근교지역의 거주지 이동 패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병원, 1995, 병원연보.
 곽철홍, 1996, 경남 제조업 고용의 지역별 성장과 업종구조, 지역과 문화의 공간적 전개, 장보용 박사학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1~221.
 권용우·유환중, 1996, 수도권 지역의 교통문제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과 문화의 공간적 전개, 장보용박사학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613~640.
 김기혁, 1982, 농촌인구이출과 그에 따른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 농업노동력을 중심으로 사례지역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도, 1982, 이농과 탈농에 대비한 농촌개발방향, 농촌경제, 5(3), 152~159.
 김인·권용우, 1984, 서울시 거주지교외화의 공간구조적 특성과 패턴, 지리학, 29, 1~19.
 김태환, 1989, 농촌중심도시 취업인구의 거주유형과 공간활동: 밀양읍의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5, 143~155.
 남영우, 1995, 도시와 국토, 법문사, 서울.
 류우익, 1981,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6, 32~43.
 류우익, 1988, 농어촌지역 하위중심지체계의 개선 방안,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워크샵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7~116.
 문지인, 1987, 교외지역 주민의 통근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한,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1, 1~19.
 박윤상, 1985, 도시성장과 도시세력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천과 구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태화, 1996, 교양인문지리학, 교학연구사, 서울.
 송동호, 1990, 서울 교외지역 교사들의 근무지 이동과 거주지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동호·안재락, 1994, 경남 서북부지역의 개발 전략, 경남개발연구소.
 신현옥, 1989, 마산·창원 주변군의 통근양상 및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지 세력권 변화와 주민 통근형태 연구

- 통근자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6, 33~51.
- 안영진, 1988, **농촌의 인구이출과 지역의 구조 변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3개 부락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홍석, 1987, **과소지역의 교육환경과 정책적 대응**, **지역환경**, 5, 5~71.
- 유환중, 1987, **외연적 거주이동의 공간적 패턴과 이동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배, 1995, **낙후지역 개발전략: 서부경남의 경우**, **지역계획의 새로운 전략**, 경남개발연구원, 49~91.
- 이자원, 1990, **교외지역 주민의 이주행태와 통근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덕, 1979, **서울시내 거주이동의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6, 70~86.
- 이형덕, 1982, **농촌의 가족이주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함안군, 진양군, 고성군의 가족이주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5(1), 55~65.
- 이혜은, 1988, **대중교통수단이 서울시 발달에 미친 영향: 1899~1968**, **지리학**, 37, 17~32.
- 이희연·송종홍, 1995, **서울 대도시권 권역의 설정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0(1), 35~56.
- 임석희, 1988, **공업단지 주변농촌의 주민구성과 특성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주, 1994, **농촌지역 국민학교 입지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23, 73~95.
- 진종현, 1994,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24, 175~196.
- 최양부, 1983, **농촌발전과 농촌계획**, **국토계획**, 18(2), 169~182.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센서스 제3권(통근·통학 인구)**.
- 한주성, 1988, **한국의 교통지리학 연구동향과 과제**, **지리학**, 37, 49~67.
- 한주성, 1996, **교통지리학**, 법문사, 서울.
- 허우금, 1987, **지방공업도시가 배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지리적 범위와 특성: 울산의 통근권과 통근자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4, 291~309.
- 허정화, 1989, **농촌지역 교사들의 활동공간: 충북 진천군의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6, 69~85.
- 홍경희, 1979, **한국도시연구**, 홍경희박사회갑기념논집, 경북대사대지리과동창회.
- 홍상기, 1987, **경기도의 통근양상과 전입인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5, 65~81.
- 황창윤, 1984, **서울 대도시권 인구집중 반전현상에 대한 소고**, **국토연구**, 3, 144~160.
- Braun, B. and Collignon, F., 1995, **Les Dynamiques Spatiales de la Population: La Mobilité Habituelle**, **La France en Fiches**, Bréal, Paris, 76~81.
- Davis, J.S., 1993, **The commuting of exurban home buyers**, **Urban Geography**, 14, 7~29.
- Fuchs, R.J. and Demko, G.J., 1977, **Commuting and urbanization in the socialist countries of Europe**, **Bulletin of the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19(1), 21~38.
- Hanson, S. and Johnston, I., 1985, **Gender differences in work-trip length: explanations and implication**, **Urban Geography**, 6(3), 193~219.
- Hartshorn, T.A.,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New York.
- Johnston, I., 1988, **The journey to work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Urban Geography**, 9(2), 138~154.
- Jordan, T.G., Domosh, M. & Rowntree, L., 1994, **The Human Mosaic**, Harper Collins, New York.
- Joseph, A.E. and Poyner, A., 1982, **Interpreting patterns of public service utilization in rural areas**, **Economic Geography**, 58(3), 262~273.

- Ley, D., 1985, Work-residence relations for head office employees in an inflating housing market, *Urban Studies*, 22, 21~38.
- Madden, J.F., 1981, Why women work closer to home, *Urban Studies*, 18, 181~194.
- Mogridge, M.J.H., 1979, Changing spatial patterns in the journey-to-work: a comparison of the 1966 and 1971 census data in London, *Urban Studies*, 16, 179~190.
- Noin, D., 1995, *L'espace français*, A. Colin, Paris.
- O'Connor, K., 1980, The analysis of journey-to-work patterns in hum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4), 475~499.
- Plane, D.A., 1981, The geography of urban commuting fields: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New England, *Professional Geographer*, 33, 182~188.
- Preston, V., McLafferty, S. and Hamilton, E., 1993,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black, white, and Hispanic women's commuting, *Urban Geography*, 14(3), 228~250.
- Singell, L.D. and Lillydahl, J.H.,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mute to work patterns of males and females in two-earner households, *Urban Studies*, 2, 119~129.

The Metropolitan Chinju in Western Kyungna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mmuting Areas*

Kwak, Chul-Hong** · Lee, Jeon***

The impact of a central place on daily living over wide outlying territory has been one of traditional subjects in the field of urban geography. The flow of rural population toward the central city of Chinju characterizes the population movement in Western Kyungnam, where the spillover of urban population into outlying areas, an especially prominent phenomenon in American society, does not occur.

The central city of Chinju is supposed to be the most favored settlement area in Western Kyungnam. More than two thousands of teachers, who live in Chinju, cross the city boundary each morning to do their jobs in Western Kyungnam. But only ninety teachers living outside Chinju commute to the workplace in the city. The teachers willingly spend hours commuting each day to enjoy better quality of life in the central city. In fact, the central city of Chinju functions as bedroom communities for many middle-class workers in Western Kyungnam.

On the basis of teachers' commuting behavior, four levels of Chinju's urban spheres are identified in Western Kyung-

nam. As Table-6 and Figure-2 show, the first-order level of Chinju's sphere includes most Myuns of Sanchung/Hadong Guns and some Myuns of Sachun/Gosung Guns. The second-order level comprises Sanchung/Sachun Eubs and many Myuns of Sachun/Gosung Guns. The third-order level is made up of Samchunpo, Hadong/Gosung/Eryung/Namhae/Habchun/Hamyang Eups, and many Myuns of Eryung/Namhae/Habchun Guns. And all of Guchang Gun and most Myuns of Hamyang Gun belong to the fourth-order level of Chinju's sphere.

The influence sphere of Metropolitan Chinju is extended farther in the direction of less competition with other metropolises. Such a situation occurs to the west and south of Chinju. Daily commuting, defined as the journeys to and from work, is an excellent indicator for delimiting urban spheres of influence.

Key words : Western Kyungnam, urban spheres of influence, Metropolitan Chinju, commuting zones, reverse commuting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NON DIRECTED RESEARCH FUND, Korea Research Foundation, 1996.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